

전국금속노동조합 제9기 지부선거

인천지부 선거홍보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6층 전화 02)732-2318 팩스 02)732-2319

<http://kmwu.kr/elec/2015/>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과의 소통!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 노동자가 살길이다.

지부장 후보

김현동

- 1993년 현대제철 인천공장 입사
- 2004년 현대제철 수석부위원장 출마
- 2009년 대의원 및 운영위원
- 2010년 현대제철노조 통합3대 부지부장
- 2013년 현대제철지회 부지회장(현)

수석부지부장 후보

이대우

- 2007년 한국자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2009년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 2011년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 2013년 금속노조 인천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현)

사무국장 후보

전승철

- 2001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지회 사무장
- 2003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지회 지회장
- 금속노조 중앙위원 및 대의원
- 2005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 2011년 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 2013년 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현)



현장과의 소통!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 노동자가 살길이다.

I.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 2016년 자본과 정권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을 하겠습니다.

II. 현장 조합원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장순회와 간부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회별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회 상근자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II.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지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역의 노동 상담 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지역지회 건설을 통해서 조직사업의 기초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IV. 지역 금속노동자 공동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공동운영위원회 회의를 안정화, 정기화 하겠습니다.
-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통합 부서장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V. 지역연대의 강화와 진보정치의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 의료, 교육, 평화통일, 사회공공성 사업에 연대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 노동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진보정치의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출마의
번

9기 인천지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며.....

조합원동지 여러분!

현재 인천지부에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콜트악기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와 정리하고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3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코퍼레이션지회의 공정대표 의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투쟁, 신성산업개발지회의 정리해고 분쇄투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의 보람자원 고용승계투쟁, 동광기연지회의 단체협약 이행투쟁 등이 인천지부의 투쟁하는 사업장들입니다.

특히 콜트악기 정리해고 문제해결과 각 지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집중시켜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며 관련법 개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대에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는 벼랑 끝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하락하고 있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력은 느슨해져 있습니다.

조합원의 고령화, 신입조합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단결과 실천을 통한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이 살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으로 단결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단결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만행을 막아냅시다.

노동조합으로 단결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만행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지부장 후보

이대우 수석부지부장 후보

전송철 사무장 후보

금속노조 제9기 인천지부 선거

■투표일 2015년 11월 9일(월) ~ 11일(수)